

Highschool Students' and English Teachers' English Learning Beliefs

Yu Jeong Lee & Kyung Ja Kim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Korean high school students' beliefs about English learning and to compare them with Korean high school teachers' beliefs. A total of 300 students(160 boys, 140 girls) and 17 teachers(11 male, 6 female) at a school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taining 35 items. The result produced five underlying construct; *nature of learning English*, *aptitude for learning English*, *difficulty of learning English*, *Strategy for learning English* and *motivation of learning English*.. Learners believed that it was difficult to learning English but anybody could learn it. However, they believed that they didn't have good ability to learn English and they had external motivation for learning English. And some believes of learners corresponded with teachers', but the others did not. Based on the findings, pedagogical implications to improve English instruction were suggested.

Key words: learning beliefs, high school English, students' beliefs, teachers' beliefs

I . 서론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영어는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열 또한 대단하다. 영어 과목에 있어 정규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이루어지지만 이보다 훨씬 앞선 유아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은 물론 심지어 태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적어도 8년에서 10년 정도의 영어 학습을 받아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신들만의 어떠한 생각 즉, 개인적인 신념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한국에서보다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영어의 네 가지 활용능력 중에서 말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신념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학습자의 신념과 학습 방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학습자의 신념은 학습 동기, 학습 전략, 학습 태도, 학습 성취도 등 여러 가지 변인들과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많은 연구들에서 외국어 학습의 핵심요소는 신념이었으며,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신념은 그들의 학습 동기, 학습 전략, 학습 태도,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학습자들은 어떠한 사항에 있어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다. Horwitz(1987)는 학습자가 부정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신념을 갖게 되면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의 신념뿐만 아니라 교사의 신념 또한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고, 특히 외국어 학습과 지도에 있어 교사의 교수 신념은 교실 수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외국어 교사의 교수 신념은 학습자들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이끌어 내고, 교사의 수업 설계와 효과적인 수업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Peacock(1998)에 따르면 학습자의 신념과 교사의 신념이 상충할 때 학습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학습자의 학습 신념과 교사의 교수 신념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 학습자는 자심감과 만족감을 잃게 되어 수업 활동에 소극적 참여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와 교사는 각각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외국어 학습에 대한 연구를 이해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외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하지만 학습자의 학습 신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음에 비해, 외국어 학습에 있어 한국인 고등학생의 학습 신념과 교사의 교수 신념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 한국인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들의 학습 신념과 고등학교 교사의 교수 신념을 비교해하여, 외국어 학습에 있어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신념이 영어 능력과 관련이 있는지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1. 영어 학습에 있어서 한국인 고등학생 학습자의 학습 신념은 어떠한가?

2. 영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학습 신념과 교사의 교수 신념은 일치하는가?

II. 본론

1. 연구 참여자 및 연구 도구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S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30명과 17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 학습자

학습자들은 18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된 열두개의 학급에서 표집되었으며, 남학생 160명(53.33%)과 여학생 140명(46.67%), 총 300명이 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상 수준의 학습자가 101명, 중 수준의 학습자가 115명, 하 수준의 학습자가 84명 참가하여, 상·중·하위권의 학습자들이 비교적 고루 분포해 있는 집단에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참가한 연구 참여자들은 수준별 이동 수업을 위해 상·중·하반으로 나누어진 학습자들이다. 2학년 1학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하여 수준별로 나누어진 반이며, 본 연구를 위해 다음 <표 1>과 같이 각 수준별 네 학급씩을 선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및 수준별 인원

	상	상	상	상	중	중	중	중	하	하	하	하
남	27	28			29	29			25	22		
여			28	28			30	27			18	19
총원		101				115				84		

(2) 교사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습자들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교사로, 남교사 11명(64.7%), 여교사 6명(35.3%)이며 이들의 교육경력은 1년 미만에서부터 25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2) 연구 도구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BALLI를 이용하여 한국 학습자에 맞게 수정한 설문지와 배경 정보를 묻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영어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35문항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배경정보를 묻는 설문지는 나이, 성별, 영어 학습 시간, 본인이 생각하는 영어 능력 정도, 영어 습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어로 말하는 친구가 본인의 영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영어 습득을 위해 가장 강조되어야 할 학습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참여자들이 주어진 15분의 시간 동안 설문 문항을 작성하도록 통제하였다. 또한 설문의 목적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설문지 응답 방법에 대해 한국어말로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3) 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2년 10월 중순경 영어 수업시간에 이루어졌다. 열두 개의 학급 중 세 개의 학급은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였고, 아홉 개의 학급은 담당 영어 교사에게 부탁하여 수집하였으며, 회수율은 100%였다. 설문 조사 후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가진 신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2. 연구 결과

이번 장에서는 SPSS를 통해 분석한 한국인 고등학생의 영어에 대한 신념, 그들의 신념과 영어 성취도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표를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각 표에서는 응답자의 수, 평균, 표준편차로 결과 수치를 표현한다.

영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SPSS를 통해 35개의 설문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요인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설문 문항 35개 중 관련성을 가진 문항끼리 묶어 여섯 개의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의 제목을 붙였다. 35개의 설문 문항 중 어느 요인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3개의 문항은 제외하였다.

분류 결과 총 33개의 설문 문항을 1)영어 학습의 어려움, 2)영어 학습의 동기, 3)영어 학습 능력, 4)영어 말하기의 어려움, 5)영어 학습의 본질, 6)영어 학습에 있어서 정확성의 중요성이라는 여섯 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 표에서 응답자의 반응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1부터

5(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까지 반응 빈도 퍼센트를 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다.

<표 2> 영어 학습의 성격

설문 문항		1	2	3	4	5	M	SD
7. 영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	2	14	13	50	21	3.74	1.00
	교사	0	0	6	82	12	4.06	.43
8. 영어습득을 위해서는 영미문화를 알아야 한다.	학습자	2	18	23	45	12	3.48	.97
	교사	0	6	0	82	12	4.00	.61
17. 영어 학습에서 풍부한 어휘 습득은 중요하다.	학습자	1	5	11	50	33	4.04	.85
	교사	0	12	6	82	0	3.71	.69
22. 기초 때부터 영어 실수를 바로 잡아 주지 않으면 나중에 영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학습자	3	15	18	49	15	3.57	1.01
	교사	6	47	12	35	0	2.76	1.03
23. 영어 학습에서 영문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학습자	13	41	32	12	1	2.48	.92
	교사	12	65	18	6	0	2.18	.73
27. 영어 학습은 다른 교과목 (수학, 사회) 학습과 다르다.	학습자	2	11	19	49	19	3.74	.95
	교사	0	0	12	53	35	4.24	.66
28.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학습자	0	11	6	18	65	4.39	.97
	교사	2	9	28	38	23	3.71	.86
32.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는 같다.	학습자	32	42	22	3	1	1.98	.85
	교사	35	53	0	12	0	1.88	.93
35. 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요구한다.	학습자	1	3	14	44	38	4.14	.86
	교사	0	12	6	77	6	3.76	.75

위 <표 2>는 35개의 설문 문항 중 영어 학습의 성격에 관련된 문항들을 분류하여 한 데 묶은 것이다.

총 300명의 학습자 중 71%(213명)의 학습자가 “영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7번)”고 믿고 있었으며, 이러한 신념을 뒷받침하는 이유로는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학습자 중 16%(48명)은 정확한 영어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상대가 이해할 정도의 발음이면 굳이 정확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학습자 중 67%(172명)는 “영어습득을 위해서는 영미문화를 알아야한다(8번)”고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신념을 가진 이유에 대해 ‘풍부한 배경지식의 습득이나 구어체 표현을 알기 위해서 혹은 독해나 듣기 학습을 할 때 모르는 단어의 용이한 추측을 위해서 영미문화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학습자 중 83%(247명)의 학습자는 “영어 학습에서 풍부한 어휘습득이 중요한 부분(17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습자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본으로 어휘력을 꼽고 있었고, 어휘력이 떨어지면 나머지 다른 영역들의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휘력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나중에 정확한 영어 말하기를 위해 기초 때 영어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수적인지(22번)”를 묻는 문항에서는 학습자 중 64%(192명)의 학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이러한 신념을 가진 학습자들은 화석화(fossilization)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기초 때 실수를 바로 잡아주지 않아도 나중에 정확한 영어 말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학습자들은 18%(54명)로 소수의 학습자는 기초 때는 흥미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며 실수는 언제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습자 중 13%(39명)의 학습자만이 “영어 학습에 있어서 정확한 영문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23번)”고 생각하였으며, 54%(162명)의 학습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먼저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영문법이 중요한 우위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은 문법 보다는 영어 학습에 있어서 자신감 혹은 실제 의사소통 능력이나 글쓰기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비록 더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영문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단지 좋은 시험 성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영문법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번에는 “영어를 학습하는 것은 사회나 수학과 같은 다른 교과목을 학습하는 것 비교하였을 때

같은지 차이가 있는지(27번)”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학습자 중 68%(204명)의 학습자가 영어 학습과 다른 교과목의 학습은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들은 다른 교과목과 다르게 영어는 감각이 중요하며, 정확하게 답이 정해진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영어와 다른 교과목의 학습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가 같다(32번)”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학습자 중 74%(222명)의 학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단 4%(12명)의 학습자만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어서 “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요구하는지(35번)”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학습자 중 82%(245명)의 학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단 4%(12명)의 학습자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영어 학습이 많은 암기를 요구한다고 답한 학습자의 모두는 ‘영어는 단어 및 숙어, 문법 등을 많이 암기해야 하므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였다.

그렇다면 영어 학습의 성격에 관해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은 차이를 보일까. 만약 그렇다면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이는 문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무엇일까. 영어 학습의 성격에 관한 <표 3>을 보면 학습자 신념과 교사 신념이 유사한 응답 분포를 나타낸 문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항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학습자 신념과 교사 신념이 가장 유사한 응답을 보인 것은 “영어 학습에서 풍부한 어휘 습득이 중요한지(17번)”를 묻는 문항과 “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필요로 하는지(35번)”를 묻는 문항이었다. 먼저 영어 학습에서 어휘 습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300명의 학습자 중 83%(247명)와 17명의 교사 중 82%(14명)가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영어 학습은 많은 암기를 요구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학습자 중 82%(245명)와 교사 중 83%(14명)가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 많은 암기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분포를 분석해 볼 때, 학습자와 교사 대부분은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 어휘 습득과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문항은 “영어 습득을 위해 영미문화의 학습이 필요한지(8번)”를 묻는 것으로, 학습자의 57%(171명)가 영미문화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교사는 94%(16명)가 영미문화 학습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영미문화 학습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어 학습에 있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의 중요성(28번)”을 묻는 것으로, 학습자의 83%(248명)가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교사의 61%(10명)가 학습자와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 문항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응답률 차이는 22%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영어 학습의 적성

설문 문항		1	2	3	4	5	M	SD
1. 영어는 어른보다 아이가 쉽게 습득한다.	학습자	2	3	16	52	26	3.97	.86
	교사	0	6	0	35	59	4.47	.80
2.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학습자	4	10	27	45	14	3.54	.99
	교사	0	6	0	77	18	4.06	.66
6. 한국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영어습득을 잘 한다.	학습자	6	16	45	28	4	3.07	.93
	교사	6	71	12	12	0	2.30	.77
10. 다른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어도 쉽게 배운다.	학습자	4	21	33	36	7	3.20	.97
	교사	0	24	12	53	12	3.53	1.01
11.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영어 습득에는 약하다.	학습자	22	41	28	8	2	2.27	.95
	교사	12	53	29	6	0	2.29	.77
16. 나는 영어습득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학습자	20	35	40	3	2	2.34	.91
	교사	0	24	59	18	0	2.94	.66
19.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어습득에 유리하다.	학습자	16	20	47	14	3	2.68	.99
	교사	0	35	18	47	0	3.12	.93
21. 나는 다른 사람과 영어로 말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학습자	4	19	29	37	11	3.32	1.03
	교사	6	41	24	29	0	2.76	.97

위 <표 3>은 35개의 설문 문항 중 영어 학습의 적성에 관한 문항들을 분류하여 한 데 묶은 것이다. 300명의 학습자 중 78%(234명)의 학습자가 “어른보다 아이가 영어를 더 잘 습득한다(1번)”고 생각하였고, 단 5%(15명)의 학습자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어른보다 아이가 영어를 더 잘 습득한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은 그들이 가진 신념의 이유를 ‘어른과 어린아이의 뇌 성향 및 적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2번)”에 대해서는 59%(177명)의 학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영어 성적이 좋은 학습자들의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14%(42명)의 학습자가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고 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영어 실력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한 학습자와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습자 모두가 그 이유를 학습자의 노력으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영어 습득에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16번)”를 묻는 문항에 대해 학습자 중 단지 5%(15명)만이 그렇다고 답하여,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만 자신은 그 특별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영어 과목과 수학이나 과학 과목의 능력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11번)”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학습자 중 63%(189명)의 학습자가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잘한다고 해서 영어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리고 단 10%(30명)의 학습자만이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잘하면 영어를 못한다고 답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연계 과목인 수학, 과학과 인문계 과목인 영어 사이의 학습능력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 <표 3>을 통해 영어 학습의 적성에 관한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먼저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일치하는 것은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영어 습득은 잘 하지 못하는지(11번)”에 대한 문항으로 300명의 학습자 중 63%(189명)와 17명의 교사 중 65%(11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습자와 교사 모두 수학이나 과학의 자연계열의 학습 능력이 영어와 같은 어문계열의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방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어를 습득함에 있어 나이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1번)”를 묻는 문항에 있어서는 학습자 중 78%(234명)과 교사 중 94%(16명)가 영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더 유리하다고 답하여, 응답률에 있어서 16%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습자의 상당수와 교사의 대부분은 나이와 영어 습득능력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영어로 말하는 것에 소극적인지(21번)”를 묻는 문항에 대해 48%(144명)의 학습자가 영어로 말하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답하였으며, 29%(5명)의 교사가 같은 의견을 보여 응답률에 있어 19%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영어 학습의 적성에 있어 학습자 신념과 교사의 신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 학습자들과 다른 나라 학습자들의 영어 습득 실력 비교(6번)” 를 묻는 문항이었다. 응답 결과 22%(66명)의 학습자만이 한국 학습자들은 다른 나라 학습자들에 비해 영어 습득 실력이 뛰어나지 못하다고 답한 반면, 교사의 78%(13명)가 같은 응답을 하여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에 있어 56%의 응답률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차이를 눈에 띄게 확인 할 수 있는 다른 문항은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2번)” 에 관한 것인데, 학습자의 59%(177명)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무려 교사의 94%(16명)이 그렇다고 답하여 학습자와 교사 신념의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영어 학습의 어려움

설문 문항		1	2	3	4	5	M	SD
4. 영어는 습득하기								
(1) 매우 어려운 언어	학습자	5	50	36	7	1	2.49	.76
(2) 어려운 언어 (3) 보통인 언어								
(4) 쉬운 언어 (5) 매우 쉬운 언어이다.	교사	6	35	59	0	0	2.53	.62
5. 나는 영어를 남들만큼 잘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자	2	11	52	27	8	3.28	.84
	교사	0	6	18	65	12	3.82	.73
25. 영어로 작문하는 것보다 영어 말하기가 더 쉽다.	학습자	4	16	28	42	11	3.40	1.00
	교사	0	47	18	35	0	2.88	.93
33. 누구나 영어 말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다.	학습자	1	6	17	52	23	3.91	.86
	교사	0	12	6	53	29	4.00	.94
34. 영어 듣기/말하기 보다 읽기/쓰기가 더 쉽다.	학습자	9	21	28	29	12	3.13	1.16
	교사	12	29	18	35	6	2.94	1.20

위 <표 4>는 35개의 설문 문항 중 영어 학습의 어려움에 관한 문항들을 분류하여 한 데 묶은 것이다. 먼저 300명의 학습자 중 절반 이상인 55%(165명)이 “영어는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4번)” 라고 응답하였으며, 단지 8%(24명)이 습득하기 쉬운 언어라고 응답하였다. 영어를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라고 답한 학습자의 대다수는, 영어는 모국어인 한국어와 비교하여 문장 구조부터 어휘 및 문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르므로 습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이 이렇게 습득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영어의 영역 중 말하기를 누구나 습득할 수 있다(33번)” 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75%(225명)의 학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지만, “나는 영어를 남들만큼 잘 습득할 수 있을지(5번)” 묻는 문항에 대해서 학습자 중 단지 35%(105명)만이 그렇다고 답하여, <표 3>의 16번 문항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어 학습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학습자들은 영어의 활용능력에 대한 난이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학습자 중 53%(159명)가 “영어로 작문하는 것보다 영어로 말하기가 더 쉽다(25번)” 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20%(60명)에 불과하였다. 대입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해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수업을 살펴보자면 거의 독해나 문법 위주의 수업이 주를 이루고 약간의 듣기 수업이 병행된다. 듣기/말하기 수업 역시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한 회화위주의 수업이 아닌 대입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로 문제 푸는 기술을 익히는 정도이다. 하지만 작문은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평가하는 영역이 아니므로 수업시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영어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번 고치고 생각을 해야 하지만, 영어로 말하기는 작문에 비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수업시간에 거의 접해보지 못했고 많은 생각을 요하는 영어 작문에 비해, 즉흥적이고 수업시간에 약간이나마 접해보았던 영어 말하기를 더 쉽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학습자 신념과 교사의 신념이 일치하는 문항과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을 비교 및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영어의 활용 능력 중 듣기 및 말하기와 읽기 및 쓰기를 비교하였을 때 어떤 것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지(34번)” 를 물었을 때, 300명의 학습자 중 41%(123명)가 읽기 및 쓰기가 더 쉽다고 답하였으며, 17명의 교사 중 41%(7명)이 학습자의 의견과 같은 응답을 하여 학습자와 교사의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게 된 원인은 듣기나 말하기가 아닌 독해나 문법 위주의 대입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현 고등학교 수업 환경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영어로 말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33번)” 에 대해 75%(225명)의 학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82%(14명)의 학습자가 같은 응답을 하여 영어 말하기 능력 습득에 대해 학습자와 교사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신에게도 남들만큼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5번)” 에 대해

학습자의 35%(105명)만이 자신의 영어 습득에 대한 잠재적인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교사의 77%(13명)가 그와 같이 응답하여, 영어 습득에 있어 자신의 잠재적 능력에 대해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문항은 누구나 영어로 말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33번 문항, 자신에게 특별한 영어 습득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표 3>의 16번 문항과 연결 지어 봤을 때, 이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영어는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이지만, 영어 말하기는 누구나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영어 습득에 대해 본인이 가진 특별한 능력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영어 학습 전략

설문 문항		1	2	3	4	5	M	SD
9. 영어를 정확하게 말하기 전까지는 영어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학습자	48	43	7	1	1	1.64	.73
	교사	65	35	0	0	0	1.35	.49
13. 나는 영어권 친구와 영어연습하는 것을 즐긴다.	학습자	32	31	23	11	3	2.20	1.09
	교사	0	6	41	47	6	3.53	.72
14. 나는 영어 어휘를 모를 때 보통 추측해서 알려고 한다.	학습자	3	16	20	51	10	3.49	.97
	교사	0	0	6	82	12	4.06	.43
18. 영어 습득을 위해 영어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	0	1	3	45	51	4.46	.60
	교사	0	0	0	59	41	4.41	.51
26. 오디오 교재(카세트, CD)는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학습자	4	6	30	48	11	3.55	.92
	교사	0	0	18	65	18	4.00	.61

위 <표 5>는 35개의 설문 문항 중 영어 학습 전략에 관한 문항들을 분류하여 한 데 묶은 것이다. 먼저 “영어로 정확하게 말하기 전까지 영어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지(9번)” 를 묻는 문항에서는 300명의 학습자 중 91%(273명)의 학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신념을 가진 거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영어로 정확하게 말 할 수 없어도 여러 차례 시도하며 시행착오를 거쳐야

영어 실력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영어 습득을 위해 영어의 반복 연습이 중요한지(18번)” 를 묻는 문항에 대해 학습자 중 96%(288명)의 학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단 1%(3명)의 학습자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 역시 9번 문항에 대한 의견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처럼 영어를 잘 말하기 위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들은 과연 “영어권 친구와 영어 연습하는 것을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13번).” 학습자 중 단 14%(42명)의 학습자만이 영어권 친구와 영어 연습하는 것을 즐긴다고 하였고, 63%(189명)의 학습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유로는 입시 위주의 영어 교육으로 인해 영어권 친구를 사귄 기회가 많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대학 입시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영어권 친구와 말할 기회가 많지 않다면 카세트나 CD와 같은 오디오 교재의 사용은 어떠할까. 학습자 중 59%(177명)가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오디오 교재의 사용은 도움이 된다(26번)” 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어를 접할 때 모르는 어휘는 추측해서 알려고 하는지(14번)” 를 묻는 문항에서 학습자 중 61%(183명)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19%(57명)의 학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많은 학습자들이 모르는 어휘는 바로 사전을 찾거나 물어보는 등 직·간접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추측해서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들을 분석하여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신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영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반복 학습의 중요성(18번)” 에 대해 300명의 학습자 중 96%(288명)가 영어 습득을 위해서 영어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17명의 교사 중 100%(17명)가 학습자와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영어를 정확하게 말하기 전까지 영어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9번)” 를 묻는 문항에 대해 91%(273명)의 학습자와 100%(17명)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즉, 학습자와 교사 모두 비록 영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영어로 말하는 것을 시도해보고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모르는 영어 어휘를 만나게 되면 추측해서 알려고 하는지(14번)” 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단지 61%(183명)의 학습자만이 영어 어휘를 모를 때 추측해서 알려고 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교사의 94%(16명)가 학습자와 같은 의견을 보여 모르는 영어 어휘의 추측에 대해 학습자

와 교사 사이의 응답률 차이는 33%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어권 친구와 영어연습 하는 것을 즐기는지(13번)” 를 묻는 것으로, 학습자 중 63%(189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단지 교사의 6%(1명)만이 학습자와 같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에 있어 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영어 학습의 동기

설문 문항		1	2	3	4	5	M	SD
20. 한국에서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	5	10	19	38	28	3.75	1.12
	교사	0	18	24	41	18	3.59	1.00
24. 나는 영어권 사람들을 더 잘 알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	학습자	20	44	22	10	3	2.32	1.00
	교사	6	53	18	23	0	2.59	.94
29. 영어를 잘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학습자	1	1	6	36	55	4.44	.76
	교사	0	0	0	77	24	4.24	.44
31. 나는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	학습자	1	1	3	34	60	4.52	.70
	교사	0	0	6	59	35	4.29	.59

위 <표 7>은 35개의 설문 문항 중 영어 학습의 동기에 관한 문항들을 분류하여 한 데 묶은 것이다. 300명의 학습자 중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싶은(31번)” 학습자는 94%(282명)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습자가 영어를 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0번)” 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66%(198명)로 이들은 대학 진학 혹은 취업과 같은 외재적인 동기로 인해 한국에서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어를 잘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29번)” 고 믿는지를 묻는 문항의 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학습자 중 91%(273명)의 학습자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반해 학습자 중 단지 13%(39명)의 학습자만이 “영어권 사람들을 잘 알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24번)” 고 답하였고, 64%(192명)의 학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한국인 고등학생이 가진

영어 학습의 동기는 영어권 사람들을 잘 알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와 교사의 영어 학습의 동기에 관한 신념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 300명 중 94%(282명)가 “영어로 잘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31번)”고 답했으며, 교사 17명 중 94%(16명)가 학습자와 같은 의견을 보여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학습자와 교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영어권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는지(24번)”에 대해 64%(192명)의 학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59%(10명)의 교사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일치함을 보였다. 다음으로 “영어를 잘하는 것과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29번)”를 물었을 때, 학습자 중 91%(273명)와 교사 중 100%(17명)가 영어를 잘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에서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20번)”에 대해 학습자의 66%(198명)이 그렇다고 답하였고, 교사의 59%(17명)가 학습자와 같은 응답을 하여, 학습자와 교사가 가진 신념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학습의 동기에 관한 문항은 유일하게 학습자와 교사 사이의 신념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습자와 교사 모두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하며, 영어를 배우는 가장 큰 동기는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고 답하여 외적 동기로 인한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Ⅲ. 결론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은 영어는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이지만 누구나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본인의 능력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적으로 외적 동기로 인해 영어를 학습하고 있었으며, 영미문화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문화 학습이 영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영어 학습의 초기부터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많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차이에 관해서는 서로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었다. 먼저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이 일치하는 문항들은

‘정확하게 영어를 말하기 전까지 영어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지(9번),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자연계열 학습과 영어 학습에 있어서 성취도의 상관관계(11번), 영어 학습에서 풍부한 어휘 습득의 중요성(17번), 영어 습득에 있어 반복학습의 중요성(18번),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의 중요성(20번), 영어를 배우는 이유(24번, 29번), 영어로 잘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31번), 영어로 말하는 능력의 습득 가능성(33번), 듣기 및 말하기와 읽기 및 쓰기의 난이도 비교(34번), 영어 학습에 있어 암기의 중요성(35번)' 을 묻는 문항들이었다.

반면, 학습자와 교사의 신념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은 '영어 습득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2번), 자신에게도 남들만큼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5번), 한국 학습자들과 다른 나라 학습자들의 영어 습득 실력 비교(6번), 영어 습득에 있어 영미문화 학습의 필요성(8번), 영어권 친구와 영어연습 하는 것을 즐기는지(13번), 모르는 영어 어휘를 만나게 되면 추측해서 알려고 하는지(14번), 영어 학습에 있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의 중요성(28번)' 를 묻는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 표집 대상의 범위가 좁으며, 특히 표집 대상 중 학습자 숫자와 비교하여 교사의 숫자가 적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Abraham, R. G., & Vann, R.J. (1987). Strategies of two language learners: A case study. In A. L. Wenden & J. Rubin (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pp. 85-102).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llen, L. Q. (2002). Teachers' pedagogical beliefs and the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Foreign Language Annals*, 35(5), 518-529.
- Banya, K., & Cheng, M. H. (1997, March). *Beliefs about foreign language learning: A study of beliefs of teachers' and students' cross cultural setting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Orlando: FL.
- Cotterall, S. (1999). Key variables in language learning: What do learners believe about them? *System*, 27(4), 493-513.
- Diab, R. L. (2006). University students' beliefs about learning English and French in Lebanon. *System*, 34(1), 80-96
- Horwitz, E. K. (1985). Using student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in the foreign language methods course. *Foreign Language Annals*, 18(4), 333-340.
- Horwitz, E. K. (1987). Surveying student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In A. L. Wenden & J. Rubin (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pp. 119-129).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rwitz, E. K. (1988). The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of beginning university foreign language students. *Modern Language Journal*, 72(3), 283-294.
- Horwitz, E. K. (1999). Cultural and situational influences on foreign language learner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 review of BALLI studies. *System*, 27(4), 557-576.
- Johnson, K. E.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beliefs and practices during literacy instruction for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Journal of Reading Behavior*, 24(1), 83-108.
- Kern, R. G. (1995). Students; and teacher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Foreign Language Annals*, 18(1), 71-92.
- Kim, H. (2001).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learning styles, and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5(1), 31-46.
- Kim, K. (2001). Korean college student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nd their use of learning strategies. *Studies in Modern Grammar*, 26(4), 197-213.
- Kim, K. (2006). The English about Language Learning of Korean College Students and Their Teachers of Englis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3), 1-24.
- Kim, K. (2006). Language Learning Beliefs in Relation to English Proficiency: A Korean Sample.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61(4), 27-50.
- Mantle-Bromley, C. (1995). Positive attitudes and realistic beliefs: Links to proficiency. *Modern Language Journal*, 79(3), 372-386.
- Mori, Y. (1999).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ability to integrate information from word parts and context in interpreting novel Kanji words. *Modern Language Journal*, 83(4), 534-547.
- Park, G. (1995).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nd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of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English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ustin, TX.
- Peacock, M. (1999).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nd their relationship to profici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9(2), 247-265.
- Sakui, L., & Gaies, S. J. (1999). Investigating Japanese learner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System*, 27(4), 473-492.
- Yang, N. (2000). Teacher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A cross cultural comparison. *Texas Paper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5(1), 39-52.

BIODATA

Lee received a MA in English Education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and finished the Dr. coursework in English education from the same university. She is writing a doctoral thesis and has taught English in high school since 2004.

Kim is a professor in English education at Chosun University.